

# 신안 병풍도 꽃차산업 꽃피운다

만드라미 꽃모 심어 내년 축제 주민들 '꽃차 소믈리에' 변신 기념품 10여종 제작 판매도



'만드라미 꽃차' 신안 병풍도 주민들이 지난달 꽃차소믈리에 3급 자격증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신안군 제공>

'바다 위의 꽃정원' 신안 병풍도 주민들이 꽃차 산업을 꽃피운다. 내년부터 만드라미 축제를 열고, '꽃차 소믈리에' 자격증을 취득한 주민들은 꽃차-꽃차-꽃차-꽃차-꽃차 등 가공식품 개발과 꽃차-꽃차 병 등 관광상품을 제작 판매한다.

17일 신안군에 따르면 증도의 작은 섬 병풍도가 온통 만드라미 꽃으로 형형색색 물들어가고 있다. 만드라미 꽃동산을 비롯해 만드라미 조성지가 12ha에 달한다.

만드라미는 '시들지 않는 열정'이라는 꽃말처럼 8월부터 10월까지 개화 기간이 길어 강건한 꽃으로 인식이 됐다.

병풍도 만드라미 꽃동산에는 담벼루, 촛불, 여우 꼬리 모양 등 다양한 형태와 여러가지 색깔의 만드라미를 만날 수 있다.

주민들은 올해 만드라미 꽃모 2000만 본을 심어 '섬 만드라미 축제'를 열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아쉽게 취소했다.

대신 병풍도 주민들은 만드라미 꽃차 상품화를 위해 꽃차 소믈리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만드라미를 관리하며 내년 축제를 구상하고 있다.

마을 주민 18명이 지난달 꽃차소믈리에 3급 자격증 교육 과정을 마쳤다. 이들은 '몸에 좋은 만드라미 꽃차를 전문적으로 배워 꽃차산업을 꽃피우겠다'며 의지를 불태웠다.

강인경 '천사의섬 꽃이야기' 대표가 꽃차용으로 재배 관리한 만드라미뿐만 아니라 매리골드, 아마란스 꽃차와 꽃청, 꽃식초, 꽃식혜 등 식용꽃의 다양한 가공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이영란 부녀회장은 "만드라미 밭을 가꾸느라 바쁘지만 꽃차 교육 시간이 손꼽아 기다려졌고, 꽃차를 만드는 동안 몸과 마음은 행복했다"며 "꽃차 만드는 전문기술을 배워 앞으로 병풍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꽃차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또 만드라미 매력과 아름다움을 일상

에서 향유 할 수 있도록 기념품도 만들었다. 최신 트렌드와 소비자 수요를 반영해 컵-에코백-물병-스마트폰 거치대 등 10여종과 납킨공예로 만든 소품-수공예 부채 등 소장 가치가 높은 품목으로 제작,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드라미 관광기념품은 병풍도분교 전시장에 선보인 후 병풍도 현지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꽃차 가공 전문인력 양성과 더불어 만드라미 축제와 연계해 상품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꽃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해남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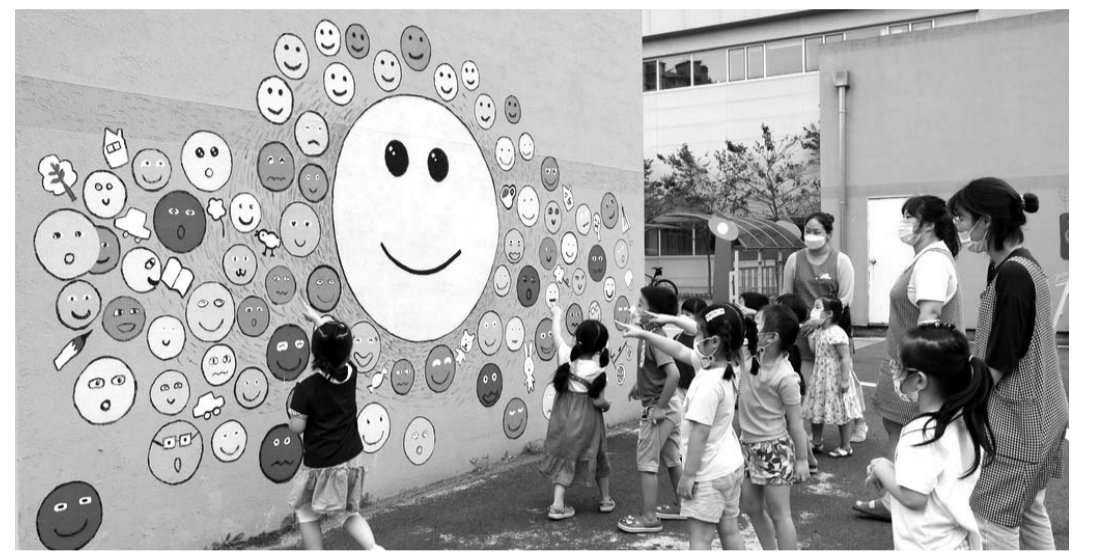
해남군이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했다. 해남군은 재난 발생 시 주민들에게 각종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지난 16일 해남군의회를 통과, 제정됐다고 17일 밝혔다.

18일 공포되는 조례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결혼 이민자 포함)으로 한정하고, 현금 지급을 기본으로 필요시 지역화폐 또는 현물-용역 등으로도 지원이 가능하

도록 했다. 다만, 지급대상자의 사망이나 주민등록 전출,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시 지급을 중지한다. 또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중지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지난 3월부터 재난기본소득 지급 논의를 시작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며 "군민의 생활 안정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양경찰과 재능기부자들이 서해해경청 청사 벽면에 대형벽화 4점을 제작했다. <서해해경청 제공>

# "바다와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 그림에 담았어요"

서해해경, 대형벽화 4점 제작

바다와 육지, 인간과 해양생물이 조화를 이뤄 공존-공생하는 세상.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경찰관과 재능기부자들이 해양경찰의 지향 가치를 담은 벽화를 직접 제작해 어린이와 시민의 정서 함양에 앞장서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서해해경은 전국에서 찾아온 그림 재능기부자 3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사 별관 자원재활용 창고 등의 벽면에 대형벽화 4점을 완성했다.

각 가로 4m와 세로 3m 크기의 벽면에 그려진 이 벽화에는 물고기와 꽃, 나무, 태양 등을 비롯해 해

경의 대형 경비함정이 그려져 있다.

서해해경 어린이집을 마주한 벽면에는 지름 1m 가량의 커다란 노란색 태양이, 마치 어린이들이 아우르는 듯 수십 개의 꼬마태양과 함께 환하게 비추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서해해경의 벽화 작업은 단순히 벽을 쌓는 담벼락보다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림을 그리자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했다. 이후 벽화작업에 그림에 소질 있는 해양경찰관들이 동참했고 여기에 해경가족과 인연이 있는 박운숙-채민주-류선종 화가가 재능기부자로 참여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 영광 'e-모빌리티 산업' 힘 모은다

중진공·전남테크노파크 등 6개기관 협의체 운영·신사업 발굴 등 협력

## e-모빌리티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2020. 9. 16 (수)



영광군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6개 기관은 지난 1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e-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영광군 제공>

영광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6개 기관이 'e-모빌리티(전기동력 운송수단) 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 힘을 모으기로 했다.

영광군은 지난 1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테크노파크, 전남지식재산센터, 한국스마트이노베이션협회,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5개 기관과 'e-모빌리티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e-모빌리티 지원기관 협의체 운영, e-모빌리티 관련 신사업 발굴, 연구개발-기술사업화 지원, e-모빌리티박람회 홍보 지원,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등 행·재정적인 협력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영광 e-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남도 전략사업인 '블루 이코노미 사업'을 이끌어 나갈 동력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영광군은 e-모빌리티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 중인 가운데 엑스포 개최, 국가사업 유치, e-모빌리티 보급 등에 노력하고 있다. 전국 최

초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국내 최고 수준의 e-모빌리티 산업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기업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5개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신속-집중-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다. e-모빌리티 산업과 관련 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 세얼굴

### "원전 운영 능력 입증해 주민 신뢰 회복"

이승철 한빛원전 본부장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운영 능력을 다시 입증해 주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제23대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장에 이승철(57) 한빛원전 제2발전소장이 지난 16일 취임했다.

이 선임 본부장은 "한빛본부가 운영하는 원전 6기의 안전성을 확보·유지하고 지역사회의 공동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출생인 이 본부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원자핵공학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7년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해 한국수력원자력 전력거래팀장, 신한울 시운전실장, 기술전략처장, 중앙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 ESS시공전문기업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